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

계한비** · 김정민***

I 알기 쉬운 개요

청소년은 또래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불안이 크며, 이러한 사회불안은 친구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속상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하여, 말이나 행동으로 친구를 따돌리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관계적 공격성은 신체적 공격보다 눈에 띄지 않아 쉽게 간과되지만, 피해자에게는 더 깊고 오래된 정서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실제 학교 폭력 사례에서도 이러한 은밀한 과롭힘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그 심각성이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관계적 공격성이 단순한 행동 특성이 아니라 사회불안과 관련된 특정 반응양식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친구의 행동을 실제보다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적대적 귀인 편향)과 속상한 일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인지적 습관(분노반추)이 관계적 공격성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불안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적대적 귀인 편향과 분노반추 경향이 높았고, 이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간에 이러한 경로가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은,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 유형별 기제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함을 뜻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청소년 관계적 공격성의 심리적 경로를 밝힘으로써, 숨겨져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맞춤형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본 논문은 저자의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25)을 수정·보완한 것임.

**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hb7517@naver.com

***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교신저자, jmkim122@mju.ac.kr

투 고 일 / 2025. 3. 10.

심 사 일 / 2025. 6. 10.

심사완료일 / 2025. 8. 5.

I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가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를 따돌리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간접적 공격 행동으로, 물리적 폭력보다 외현성이 낮지만 정서적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 있는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다. 특히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타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불쾌했던 경험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경향이 높으며, 이러한 인지·정서적 특성이 관계적 공격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인지적 요인(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적 요인(분노반추)의 이중매개 경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인천·경상 지역 소재 3개 중학교와 2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430명을 대상으로 연구 동의를 거쳐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1.0과 SPSS Macro Process 4.2를 활용하여 이중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성별과 학업성적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고, 성적 상위 집단이 중위 집단보다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다. 둘째,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불안, 적대적 귀인편향, 분노반추와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사회불안과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는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가 완전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냈으나,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부분 이중매개효과가 확인되어 하위 유형별 인지·정서적 경로 차이가 드러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으로 전환되는 심리적 과정을 확인하고, 관계적 공격성을 주도형과 반응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각 유형별 맞춤형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관계적 공격성, 사회불안, 적대적 귀인편향, 분노반추, 청소년

I. 서 론

청소년기는 또래관계가 정서적 안녕과 사회적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자아 정체성의 형성과 심리적 안정에 있어 중요한 발달 과업이 수행되는 시점이다(Erikson, 1968). 실제로 청소년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개념을 확립하고 정서조절 능력을 획득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대인관계의 안정성과 정신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박동주, 유미진, 2023). 그러나 또래관계는 단지 보호적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가장 빈번한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정옥분, 2019). 특히 또래집단 내에서의 인정 욕구, 소속감, 위계 구조의 형성 과정은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공격성을 유발하며, 이 가운데 관계적 공격성은 타인의 사회적 관계를 은밀하게 조작하거나 훼손함으로써 상대방의 심리적 안정성과 소속감을 침해하는 특성을 지닌다(Crick & Grotjahn, 1995; Crick & Nelson, 2001). 관계적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과 달리 물리적 형태가 아닌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교사나 보호자의 개입을 어렵게 하며,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를 인지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유근영, 장재홍, 2021). 이로 인해 관계적 공격성은 초기 발견이 어렵고, 사후 개입의 시점이 늦춰져 청소년의 대인관계 및 정서 발달에 장기적 부정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관계적 공격성의 내면적 발생 기제에 대한 이해를 통한 초기 개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 집단 내에서 언어적 조롱, 배제, 소문 퍼뜨리기, 사이버 따돌림 등 비가시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는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교육부의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10.2%가 피해를 경험하였고, 이 중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16.2%), 사이버폭력(9.8%)이 상위를 차지하였다(교육부, 2023). 이를 유형은 물리적 폭력보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관계적 공격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표현 양상으로 볼 수 있다(김주영 외, 2022). 또한 관계적 공격성은 연령 증가에 따라 지속되고 전략적으로 나타나며(Crick et al., 2002), 고학년일수록 사회적 위계나 배제의 논리에 따라 정교하게 조직된다(Underwood et al., 2009). 이러한 양상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이 단순한 문제행동이 아니라, 정서적·인지적 기제에 기반한 심리적 과정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관계적 공격성은 정서적, 사회적, 학업적 측면에서 청소년에게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박동주, 유미진, 2023; 박성민, 임정하, 2021). 정서적 측면에서는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배척 경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불안정성, 자존감 저하, 불안과 우울을 유발한다(Crick & Nelson, 2001). 사회적 측면에서는 또래 관계 악화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대인관계 갈등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Young et al., 2006). 학업적 측면에서 과도한 성취 압력 또는 낮은 학업 성취는 정서적 좌절감을 유발하고, 이는 또래 관계 내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Prinstein et al., 2001; 서미정, 공유경, 2024). 이처럼 관계적 공격성은 단기적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적응과 정신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외현적 공격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국내 학술 논문을 기준으로 외현적 공격성을 다룬 연구는 300편 이상인 반면, 관계적 공격성을 다룬 연구는 약 50편에 불과하다(박동주, 유미진, 2023). 이에 최근에는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 요인, 성별, 연령, 수치심, 거부 민감성 등 다양한 환경적·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박동주, 유미진, 2023; 설명희 외, 2023; 장호연, 장진이, 2017; 최지영, 배라영, 2014).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계적 공격성의 인지·정서적 기제를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박문정, 강지현, 2017; 안현진, 금명자, 201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지·정서적 요인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작동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이 성별, 학년, 학업성적 등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신민진, 하은혜, 2018; 설명희 외, 2023; Solberg & Olweus, 2003; Marsee et al., 2014; Risser, 2013),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성별, 학년, 학업성적 요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관계적 공격성은 타인의 사회적 관계를 손상시키려는 간접적·비신체적 공격행동으로 정의되며(Crick & Grotjahn, 1995), 이러한 공격성은 기능적 동기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된다.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 내에서 지위를 확보하거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행위로, 인지적 통제와 목표 지향성이 특징이다(Little et al., 2003; Loudin et al., 2003). 반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타인의 위협이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정서적 과잉 반응으로, 충동성과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주된 기제로 작용한다(Crick et al., 2002). 이처럼 두 유형은 표면적으로 유사해 보이나, 내면의 정서·인지적 기제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라 이해 및 개입 방향 역시 상이할 수밖에 없다(Girard et al.,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내외 연구는 이러한 기능적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두 유형을 통합적으로 다루거나 구분 없이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박수진, 이동훈, 2021; 박성민, 임정하, 2021; 최준섭,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 유형 간 내면적 작동 기제를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청소년기 공격 행동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Dodge와 Crick(1994)이 제안한 사회정보처리이론(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SIP)을 통해 관계적 공격성의 내면적 작동 기제를 살펴볼 수 있다. 개인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를 해석한 후 반응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6단계 처리 과정을 거친다. (1) 사회적 단서의 부호화, (2) 단서 해석, (3) 목표 설정, (4) 반응 생성, (5) 반응 결정, (6) 실행의 과정은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특성과 밀접히 상호작용하며, 특정 단계에서의 왜곡이나 편향은 공격성의 발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Crick & Dodge, 1994). 초기 단계인 단서 해석에서 사회적 단서를 부정적·위협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적대적 귀인 편향과 관련되며, 이는 공격적 반응을 합리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유가람, 박주희, 2019; 유예림, 강혜자, 2021). 이후 반응 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사고, 즉 분노반추가 정서적 자극을 증폭시켜 공격행동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Arsenio et al., 2000; 한영경, 김은정, 2011).

사회불안은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내면화 문제로, 최근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련성이 높은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Kashdan et al., 2008; 김경숙, 김완일, 2015; 김윤희, 장혜인, 2021; 박해린, 이장한, 2025).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여 긴장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이며(APA, 2013), 13세 전후로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한다(Costello et al., 2005; Kessler et al., 2005). 사회불안이 높은 청소년은 부정적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타인의 행동을 위협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회피뿐 아니라 방어적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Dixon et al., 2017). Kashdan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불안 장애를 가진 청소년 중 일부는 높은 공격성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두드러졌다.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방식에는 기능적 차이가 존재한다.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위협을 사전에 통제하거나 또래 집단 내 지위를 유지하려는 계획적 행동으로, 인지적 해석과 전략적 판단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김윤희, 장혜인, 2021; 한영경, 김은정, 2011; Loudin et al., 2003). 반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모호한 사회적 단서를 위협으로 지각하고, 이에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는 특성이 강하다(Little et al., 2003; Baumeister, 2002). 같은 사회불안이라는 정서 상태에서 비롯되더라도, 한 청소년은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주도적 공격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청소년은 불안으로 인한 정서적 긴장에 압도되어 반응적 공격을 보일 수 있다(Marsee et al., 2014). 결국 두 하위 유형 간의 차이는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으로 전환되는 경로에서 인지적 조절 수준과 정서 반응 방식에 따라 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한영경, 김은정, 2011), 각 유형에 대한 구분과 개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뜻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인지적·정서적 반응 양식을 중심으로 관계적 공격성의 심리적 기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불안을 지닌 청소년은 사회적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고, 모호한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충현, 2024). 적대적 귀인편향(hostile attribution bias)은 타인의 애매한 행동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왜곡으로(Milich & Dodge, 1984),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오해와 불신을 유발하며,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촉발한다. 특히 반복적인 사고 경향인 분노반추(anger rumination)는 정서적 각성을 장기화 시키고, 공격 행동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Bushman, 2002; Wilkowski & Robinson, 2007). 이처럼 청소년기 사회불안은 인지적 편향과 정서적 반추를 통해 대인관계에서의 부적응 행동인 관계적 공격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불안이 높은 청소년은 특히 모호한 사회적 자극을 적대적으로 귀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편, 관계적 공격성은 기능에 따라 주도적 유형과 반응적 유형으로 구분된다.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위협적 자극에 대한 방어적 반응으로 나타나며, 정서적 조절 실패와 관련이 깊다. 이때 사회불안은 과도한 위협 지각과 적대적 귀인편향을 통해 분노반추를 유발하고(한영경, 김은정, 2011), 결국 정서적 과잉 반응으로서의 공격성을 촉진할 수 있다. 반면,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적 행동으로, 사회불안을 지닌 청소년이 또래의 평가나 배제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타인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발현될 수 있다(Crick & Dodge, 1994). 이처럼 사회불안은 두 유형의 공격성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경로와 심리적 기제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가 순차적인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 유형인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에 대해 사회불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분하여 규명함으로써, 청소년기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인지적·정서적 기제를 구조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성별, 학년, 학업성적 등 인구학적 요인을 통제함으로써 주요 변인 간 인과적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하며, 관계적 공격성의 인지적·정서적 유발 경로를 통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선제적 개입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공격성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중재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학업성적)에 따라 사회불안, 적대적 귀인편향, 분노반추 및 관계적 공격성은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청소년의 사회불안, 적대적 귀인편향, 분노반추 및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는 어떠한가?

3-1.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는 어떠한가?

3-2.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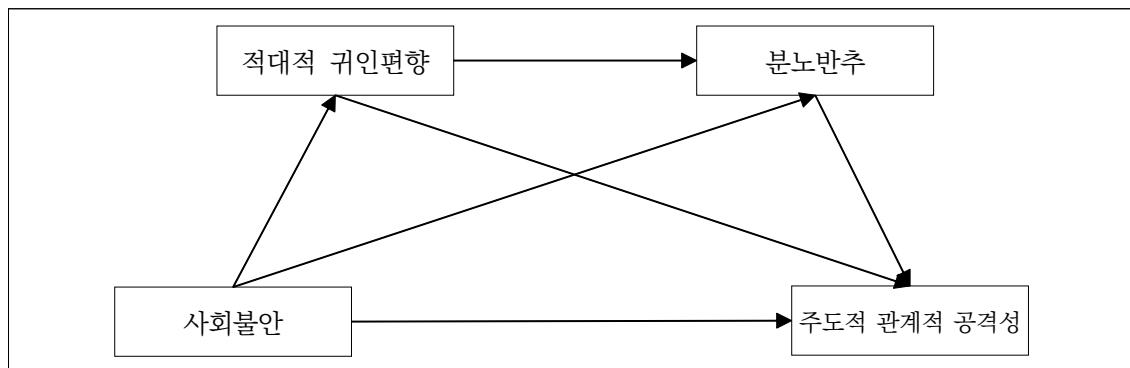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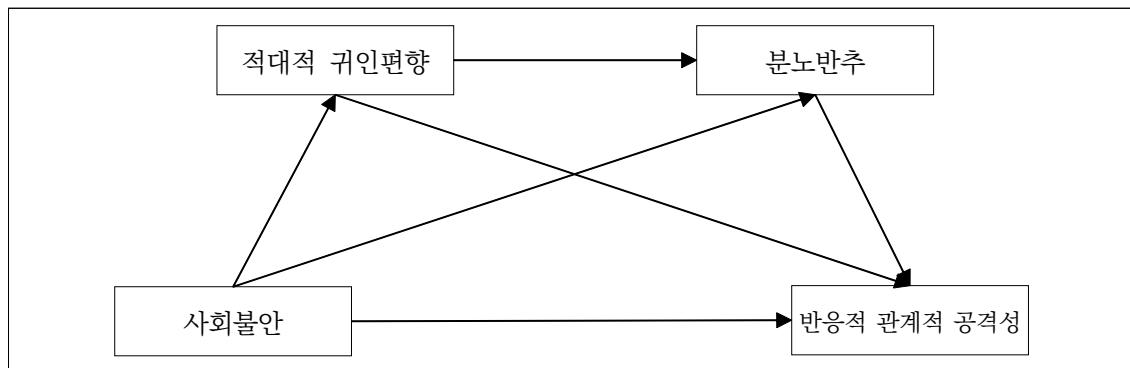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2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및 경상 지역 3개 중학교와 2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430명 중 응답이 무선

배열로 이루어졌거나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30부를 제외한 400부(온라인 395부, 오프라인 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남학생 160명(40.0%), 여학생 240명(60.0%)으로 여학생 비율이 높았으며, 중학생 207명(51.8%), 고등학생 193명(48.3%)이었다. 학업 성적은 상위권 204명(51.0%), 중위권 167명(41.8%), 하위권 29명(7.3%)으로 분포되었다.

본 조사에 앞서, 2023년 6월 7일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 30명(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연구 대상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설문을 진행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 수정이 필요하지 않아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2023년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목적, 절차, 보상을 안내하고 자발적 참여 원칙을 강조했으며, 연구 중단의 자유와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총 430부(온라인 425부, 오프라인 5부)를 배부하여 모두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 30부를 제외한 40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관계적 공격성

본 연구는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Marsee et al.(2004)이 개발한 또래 갈등 척도(Peer Conflict Scale: PCS)를 한영경, 김은정(201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주도-외현, 반응-외현, 주도-관계, 반응-관계라는 4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관계적 공격성은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10문항, 예: “나는 인기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해 뒷담화를 한다.”)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10문항, 예: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가끔 뒷담화를 한다.”)이라는 두 개의 하위 요인으로 측정되며,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3=대체로 그렇다, 4=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한영경, 김은정(2011)의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88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이 .76,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이 .80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94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이 .89,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이 .88로 나타났다.

2) 사회불안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LaGreca & Lopez(1998)가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 SAS-A)를 양재원 외(2008)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8문항, 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있다고 걱정한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5문항, 예: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몇 명 있으면 긴장한다.”), 일반적 사회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5문항, 예: “나는 잘 아는 사람들과 있어도 수줍음을 탄다.”)이라는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다고 해석된다. 양재원 외(2008)의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94로 나타났다.

3) 적대적 귀인편향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적대적 귀인편향을 측정하기 위해 Crick et al.(2002)이 개발한 가설적 상황 도구(A Hypothetical-Situation Instrument)를 유가람, 박주희(2019)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의도 귀인(10문항, 예: “그 학생이 왜 내 핸드폰을 망가뜨렸을까요?”)과 적대 귀인(10문항, 예: “이 이야기에서 친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이라는 두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0점과 1점으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방의 의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유가람, 박주희(2019)의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85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83으로 나타났다.

4) 분노반추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분노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Sukhodolsky et al.(2001)가 개발한 분노반추척도(Anger Rumination Scale: ARS)를 이근배, 조현춘(200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분노기억반추(8문항, 예: “과거에 나를 화나게 했던 사건을 계속 생각한다.”), 보복반추(5문항, 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화가 난다.”), 원인반추(3문항, 예: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자세하게 분석한다.”)라는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거의 아니다, 2=조금 그렇다, 3=꽤 그렇다, 4=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반추의 정도가 높다고 해석된다. 이근배, 조현춘(2008)의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91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94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최종 수집된 400부의 자료를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과 SPSS Macro Process 4.2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계적 공격성, 사회불안, 적대적 귀인편향, 분노반추의 평균, 표준편차, 빈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로 검토하였다. 성별, 학년에 따른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는 등분산을 만족한 변인인 사회불안, 적대적 귀인편향, 분노반추는 One-Way ANOVA와 Scheffe 검정, 만족하지 않은 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은 Welch's ANOVA와 Games-Howell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SPSS Macro를 수행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10,000회 표본 추출, 95% 신뢰구간) 기법을 적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

1) 성별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관계적 공격성, 사회불안, 적대적 귀인편향 및 분노반추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 가정 확인 결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정규성 가정은 확인되었으나,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t-검정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관계적 공격성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08$, $p<.05$). 구체적

으로, 남학생($M=28.27$, $SD=9.13$)이 여학생($M=26.48$, $SD=7.22$)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 요인인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에서도 성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2.10$, $p<.05$). 남학생($M=13.91$, $SD=4.54$)이 여학생($M=13.02$, $SD=3.57$)보다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1.66$, $p > .05$). 사회불안, 적대적 귀인 편향 및 분노반추에 대해서는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고, 등분산 가정이 역시 만족하였다. 이에 따라 등분산이 가정된 경우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을 진행하였다. 검정 결과, 사회불안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64$, $p<.01$). 구체적으로, 남학생($M=46.05$, $SD=15.53$)이 여학생($M=51.14$, $SD=14.92$)보다 사회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대적 귀인편향($t=-.04$, $p > .05$)과 분노반추($t=-1.38$, $p > .05$)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구분	집단(N)	평균(M)	표준편차(SD)	t
1. 관계적 공격성	남학생(160) 여학생(240)	28.27 26.48	9.13 7.22	2.08*
1-1.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남학생(160) 여학생(240)	13.91 13.02	4.54 3.57	2.10*
1-2.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남학생(160) 여학생(240)	14.43 13.66	4.83 4.15	1.66
2. 사회불안	남학생(160) 여학생(240)	47.05 51.14	15.53 14.92	-2.64**
3. 적대적 귀인편향	남학생(160) 여학생(240)	5.54 5.55	4.16 4.11	-.04
4. 분노반추	남학생(160) 여학생(240)	35.87 37.34	10.14 10.67	-1.38

* $p<.05$, ** $p<.01$

2) 학년

청소년의 학년에 따른 관계적 공격성, 사회불안, 적대적 귀인편향 및 분노반추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 가정 확인 결과, 관계적 공격성, 사회불안, 적대적 귀인편향, 분노반추에 대해 모두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고, 등분산 가정 역시 만족하였다. 이에 따라 등분산이 가정된 경우에 대한 t -검정을 진행하였다. 검정 결과, 적대적 귀인편향에서 학년에서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38$, $p<.01$). 구체적으로, 중학생($M=6.21$, $SD=4.25$)이 고등학생($M=4.83$, $SD=3.87$)보다 모호

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계적 공격성($t=.05, p > .05$)과 사회불안($t=-.93, p > .05$) 및 분노반추($t=.71, p > .05$)에서는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3) 학업 성적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따른 관계적 공격성, 사회불안, 적대적 귀인편향 및 분노반추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웰치 분산분석(Welch's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관계적 공격성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웰치 분산분석(Welch's ANOVA)을 실시한 후, Games-Howell 사후검정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관계적 공격성($F=4.31, p < .05$)과 그 하위 요인인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F=3.96, p < .05$)에서는 학업성적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Games-Howell 사후검정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하위 요인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F=4.82, p < .05$)에서는 학업성적 상위권($M=14.35, SD=4.57$)이 중위권($M=13.23, SD=3.79$)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권($M=15.48, SD=6.17$)은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나, 표본 크기($N=29$)가 상대적으로 적어 분산이 크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사후검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하위권 집단은 사후검정에 포함되었으며, 결과 해석 시 표본 크기($N=29$)가 작아 표본 수에 따른 통계적 신뢰도 저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불안, 적대적 귀인편향 및 분노반추에 대해서는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후, Scheffe 사후검정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불안($F=.84, p > .05$), 적대적 귀인편향($F=2.49, p > .05$) 및 분노반추($F=1.00, p > .05$)에서는 학업성적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2
학업 성적에 따른 관계적 공격성의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M)	표준편차(SD)	F	Games-Howell
1. 관계적 공격성	상위권 ^a	204	27.70	8.18	4.31*	-
	중위권 ^b	167	26.05	6.94		
	하위권 ^c	29	30.31	11.76		
1-1.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상위권 ^a	204	13.54	4.04	3.96*	-
	중위권 ^b	167	12.89	3.45		
	하위권 ^c	29	15.03	5.94		
1-2.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상위권 ^a	204	14.35	4.57	4.82**	a > b
	중위권 ^b	167	13.23	3.79		
	하위권 ^c	29	15.48	6.17		

* $p < .05$, ** $p < .01$

2. 청소년의 사회불안, 관계적 공격성, 적대적 귀인편향 및 분노반추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사회불안, 적대적 귀인편향 및 분노반추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불안($r=.22, p<.001$), 적대적 귀인편향($r=.29, p<.001$) 및 분노반추($r=.31, p<.001$)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 요인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과 사회불안($r=.18, p<.001$), 적대적 귀인편향($r=.27, p<.001$) 및 분노반추($r=.28, p<.001$)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또한 사회불안($r=.24, p<.001$), 적대적 귀인편향($r=.29, p<.001$) 및 분노반추($r=.33, p<.001$)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사회불안과 적대적 귀인편향($r=.19, p<.001$) 및 분노반추($r=.46, p<.001$)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인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r=.27, p<.001$)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이는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과 사회불안, 적대적 귀인편향 및 분노반추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1	1-1	1-2	2	3	4
1. 관계적 공격성						
1-1.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96***					
1-2.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97***	.88***				
2. 사회불안	.22***	.18***	.24***			
3. 적대적 귀인편향	.29***	.27***	.29***	.19***		
4. 분노반추	.31***	.28***	.33***	.46***	.27***	
<i>M</i>	27.20	13.38	13.97	49.50	5.55	36.75
<i>SD</i>	8.07	4.01	4.44	15.28	4.13	10.48

*** $p<.001$

3.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

1)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관계적 공격성의 성별과 학업성적을 통제한 후 SPSS Macro 4.2의 Model Number 6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과 표 5에 제시하였다. 사회불안은 적대적 귀인편향($B=.05, p<.001$)과 분노반추($B=.29, p<.001$)에 각각 유의한 정적영향을 보였다. 또한, 적대적 귀인편향은 분노반추($B=.47, p<.001$)와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B=.19, p<.001$)에도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노반추도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B=.08, p<.001$)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불안이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B=.05, p<.001$)는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를 포함한 모형에서 감소하였으나($B=.02, p >.05$),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가 사회불안과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여, 사회불안이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효과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10,000회 표본 추출과 95%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총 간접효과($B=.03$)가 유의하였으며, 신뢰구간(Boot LLCI=.02, Boot ULCI=.05)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뒷받침하였다.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B=.01$)는 유의하였으며, 신뢰구간(Boot LLCI=.003, Boot ULCI=.02)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다. 분노반추의 매개효과($B=.02$)도 유의하였으며, 신뢰구간(Boot LLCI=.01, Boot ULCI=.04) 역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B=.002$)는 유의하였고, 신뢰구간(Boot LLCI=.001, Boot ULCI=.004)에서도 0을 포함하지 않는 유의한 검증 결과가 나타났다.

표 4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

매개경로	B	S.E	β	t	LLCI	ULCI	$R^2(F)$
사회불안 → 적대적 귀인편향	.05	.01	.20	3.94***	.03	.08	.05(5.17***)
사회불안 → 분노반추	.29	.03	.43	9.57***	.23	.35	.25(26.83***)
적대적 귀인편향 → 분노반추	.47	.11	.43	4.12***	.24	.69	

매개경로	B	S.E	β	t	LLCI	ULCI	$R^2(F)$
사회불안 →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02	.01	.06	1.15	-.01	.04	
적대적 귀인편향 →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19	.05	.19	3.99***	.10	.28	.15(11.52***)
분노반추 →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08	.02	.20	3.79***	.04	.12	
사회불안 →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05	.01	.19	3.95***	.03	.08	.07(7.12***)

*** $p<.001$, 더미변수 - 성별: 남자=1, 여자=0, 학업성적: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표 5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하위1)

간접효과	B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총 간접효과	.03	.01	.02	.05
사회불안 → 적대적 귀인편향 →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01	.004	.003	.02
사회불안 → 분노반추 →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02	.01	.01	.04
사회불안 → 적대적 귀인편향 → 분노반추 →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002	.001	.001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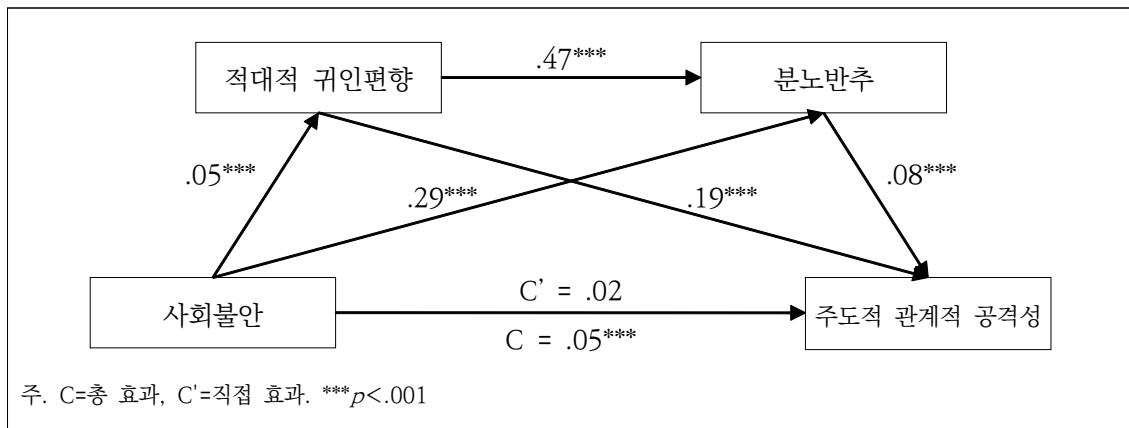


그림 3.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

2)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관계적 공격성의 학업성적을 통제한 후 SPSS Macro 4.2의 Model Number 6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사회불안은 적대적 귀인편향($B=.05, p<.001$)과 분노반추($B=.30, p<.001$)에 각각 유의한 정적영향을 보였다. 또한, 적대적 귀인편향은 분노반추($B=.47, p<.001$)와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B=.22, p <.001$)에도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노반추도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B=.09, p<.001$)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불안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B=.07, p<.001$)는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를 포함한 모형에서 감소하였으며($B=.03, p >.05$),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가 사회불안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의미한다.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10,000회 표본 추출과 95%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총 간접효과($B=.04$)는 유의하였으며, 신뢰구간(Boot LLCI=.02, Boot ULCI=.06)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뒷받침하였다.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B=.01$)는 유의하였으며, 신뢰구간(Boot LLCI=.004, Boot ULCI=.02)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다. 분노반추의 매개효과($B=.03$)도 유의하였으며, 신뢰구간(Boot LLCI=.01, Boot ULCI=.04) 역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B=.002$)는 유의하였고, 신뢰구간(Boot LLCI=.001, Boot ULCI=.005)에서도 0을 포함하지 않는 유의한 검증 결과가 나타났다.

표 6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

매개경로	B	S.E	β	t	LLCI	ULCI	R2(F)
사회불안 → 적대적 귀인편향	.05	.01	.19	3.93***	.03	.08	.05(6.86***)
사회불안 → 분노반추	.30	.03	.43	9.70***	.24	.36	.25(33.58***)
적대적 귀인편향 → 분노반추	.47	.11	.18	9.70***	.24	.70	
사회불안 →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03	.02	.11	2.04*	.001	.06	
적대적 귀인편향 →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22	.05	.20	4.22***	.12	.32	.18(16.90***)
분노반추 →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09	.02	.22	4.15***	.05	.14	
사회불안 →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07	.01	.25	5.14***	.04	.10	.08(12.23***)

* $p<.05$, *** $p<.001$, 더미변수 - 학업성적: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표 7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하위2)

간접효과	B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총 간접효과	.04	.01	.02	.06
사회불안 → 적대적 귀인편향 →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01	.004	.004	.02
사회불안 → 분노반추 →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03	.01	.01	.04
사회불안 → 적대적 귀인편향 → 분노반추 →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002	.001	.001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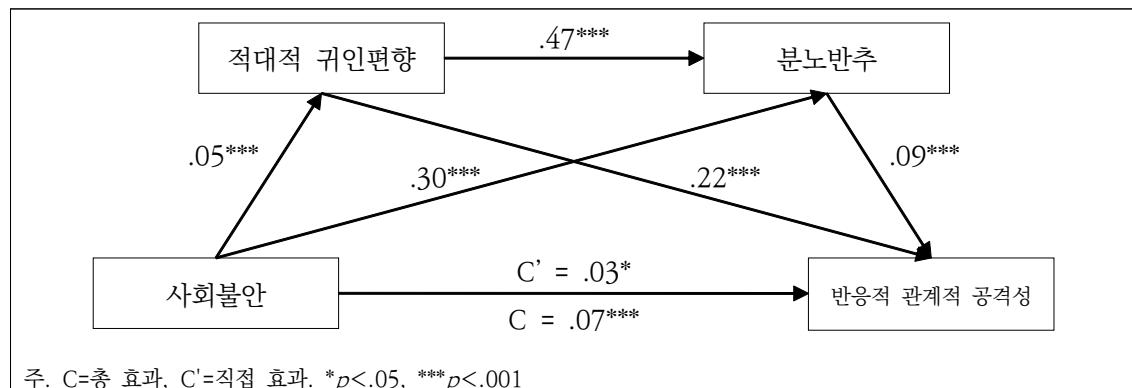


그림 4.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인인 사회불안을 출발점으로,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라는 인지적 매개 요인을 중심으로 정서·인지·행동 간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상담 현장에서 관계적 공격성을 표출하는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과 예방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및 경상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430명으로, 최종적으로 4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SPSS 21.0과 SPSS PROCESS Macro 4.2를 활용해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 연령, 학업성적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 사회불안, 적대적 귀인편향

및 분노반추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 사회불안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관계적 공격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학생이 또래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나 영향력과 관련된 상황에서 관계적 공격성을 더 자주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신민진, 하은혜, 2018) 또한,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강화되면서 은밀한 형태의 공격성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며(설명희 외, 2023),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보편화가 관계적 공격성의 표현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Faucher et al., 2014). 반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해당 유형이 도발이나 위협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Marsee et al., 2014). 따라서 관계적 공격성을 이해할 때 성별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요인과 개인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불안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LaGreca & Lopez, 1998), 이는 여학생이 또래 관계에서의 인정 욕구나 부정적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과 관련될 수 있다(Guyer et al., 2014).

다음으로, 청소년의 학년에 따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적대적 귀인편향을 보였다. 이는 발달적 미성숙, 사회적 경험 부족, 정서적 조절 능력 미숙 등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학생은 사회정보처리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모호한 상황에서도 부정적 의도를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감정 조절 미숙으로 갈등 상황에서 적대적 해석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심리학적 모델(Dodge et al., 1986)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나, 이러한 가설은 향후 연구를 통해 더욱 명확히 검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학업성적 중 상위권·중위권·하위권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상위권·중위권·하위권 간 표본 수가 균등하지 않아 통계적 신뢰도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학업성적에 따른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은 하위권($M=30.31$), 상위권($M=27.70$), 중위권($M=26.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하위권 학생들이 학업 성취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좌절감,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며, 이로 인해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보인다(Garandeau et al., 2011; Solberg & Olweus, 2003). 반면, 상위권 학생들은 높은 학업 성취를 유지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관계적 공격성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Risser, 2013).

둘째, 청소년의 사회불안, 적대적 귀인편향, 분노반추 및 관계적 공격성 간의 정적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불안, 적대적 귀인편향, 분노반추 및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 요인인 주도적·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간에 관계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불안이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정적 감정을 유발해 관계적 공격성을 촉발한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임혜은, 한세영, 2022). 또한,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적대적 귀인편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불안이 타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선행연구(유은식, 손은정, 2019; Tuente et al., 2019)와 일치한다.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분노반추가 증가하는 경향도 보였으며, 이는 사회불안이 부정적 정서를 증폭시키고 이를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김혜원, 박기환, 2020)와도 일치한다. 또한, 적대적 귀인편향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하고, 이는 갈등 상황에서 부정적 해석을 강화시켜 공격성을 유발하는 중요한 인지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가람, 박주희, 2019).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분노반추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분노반추가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부정적 감정과 해석을 강화함을 시사한다(소영, 박기환, 2015; Crick & Dodge, 1994; Kokkinos et al., 2021).

셋째,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는 이중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 요인인 주도적·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는 이중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는 완전 이중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불안이 인지적 매개 과정을 통해서만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적대적 귀인편향과 전위공격성 간의 부분 이중매개효과가 보고되기도 했으나(유예림, 강혜자, 2021),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과 그 하위 요인인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모두에서 완전 이중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적대적 귀인편향이 타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기제로 작용하고, 분노반추가 부정적 정서를 지속적으로 되새기며 이를 증폭시키는 간접 경로를 통해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으로 이어진다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특성을 가지며(신민진, 하은혜, 2018), 이러한 특성은 사회불안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인지적·정서적 과정을 거쳐 강화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반면,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는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가 부분 이중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불안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를 매개한 경우도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감정적으로 표현되는 특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박수진, 이동훈, 2021), 정서적 요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관계적 공격성 및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에서 완전 이중매개효과가 확인된 것과 달리,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불안과 정서적 직접성을 보이며 인지적·정서적 경로와 직접적인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앞서 논의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직접적으로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왜곡(적대적 귀인편향)과 그에 대한 정서적 집착(분노반추)이라는 과정을 통해 관계적 공격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Dodge와 Crick(1994)의 사회정보처리이론(SIP)에서 제시한 정보 해석 및 반응 선택의 왜곡 경로와 일치하며, 관계적 공격성의 발생 기제를 정서·인지적 반응 양식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둘째, 관계적 공격성의 기능적 하위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불안과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간에는 완전 이중매개효과, 반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간에는 부분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주도적 공격성이 인지적·정서적 경로를 거쳐서만 전략적으로 발현되는 반면, 반응적 공격성은 사회불안의 정서적 민감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차별적 경로는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 유형에 따라 작동하는 심리 기제가 서로 다르며,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유형별 맞춤 개입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셋째, 본 연구는 관계적 공격성을 기능에 따라 주도적 유형과 반응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하위 유형에 따른 인지·정서적 기제를 밝힘으로써,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의 맞춤형 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내담자는 또래 관계 속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적 행동으로 공격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중심의 대안 행동 훈련이나 사회적 기술 훈련 등 기능적 행동을 재구성하는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내담자는 위협 지각, 적대적 귀인편향, 분노반추와 같은 정서적 과잉 반응을 중심으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지 재구성 및 감정 조절 훈련이 주요한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관계적 공격성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인지행동치료(CBT) 접근은 상담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한 치료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불안장애를 진단받은 청소년이 아닌 서울, 경기, 인천 및 경상 일부 지역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장애를 진단받은 임상 집단을 포함하여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심화된 관계를 탐색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개입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으로 인한 변인의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회불안이 높은 청소년은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든 변인을 과소평가하여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 관찰, 생리적인 데이터 수집 등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병행하여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으나, 횡단적 연구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활용하여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발달적 경로와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성차가 확인하였으나, 하위 요인인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관계적 공격성을 사용하는 목적과 맥락이 다를 가능성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의 성차를 규명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이 관계적 공격성을 사용하는 이유와 기능을 비교·분석하여 오랫동안 존재되어 있는 관계적 공격성의 성차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주도적·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두 요인 간 높은 상관은 이들 하위 요인이 개념적으로 명확히 분리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두 하위 요인의 변별력을 구조모형 분석이나 혼합모형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학업성적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은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한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더욱 정교한 모형 검증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교육부 보도자료 (2023).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결과 발표.
- 김경숙, 김완일 (2015). 청소년의 사회 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쟈각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22(12), 515-541.
- 김윤희, 장혜인 (2021).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관계적 적대적 귀인편향과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21(1), 1-27. doi:10.33703/cbtk.2021.21.1.1
- 김주영, 명소연, 이동훈 (202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 분노반추, 외현적·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29(1), 105-121.
- 김충현 (2024). 사회불안이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원, 박기환 (2020). 내면화된 수치심이 가해염려 사회불안 및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분노억제와 투사의 차별화된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4), 274-286. doi:10.15842/kjcp.2020.39.4.002
- 박동주, 유미진 (2023). 국내외 관계적 공격성 관련 변인 메타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 285-302. doi:10.22251/jlccci.2023.23.2.285
- 박문정, 강지현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들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8(4), 167-190. doi:10.15703/kjc.18.4.201708.167
- 박성민, 임정하 (2021).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적, 환경적 특성 고찰: 국내 학술지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8(1), 93-117. doi:10.15284/kjhd.2021.28.1.93
- 박수진, 이동훈 (2021). 초·중학생 반응적, 주도적 관계공격성이 또래괴롭힘 피해 및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지된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교육학연구*, 59(6), 239-267. doi:10.30916/kera.59.6.239
- 박해린, 이장한 (2025).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 수준에 따른 분노 반추의 매개효과.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7(2), 671-685. doi:10.37727/jkdas.2025.27.2.671
- 서미정, 공유경 (2024).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공동발달 프로파일 분석: 예측요인 및 학교생활적응과 비행수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5(1), 93-109. doi:10.7856/kjcls.2024.35.1.93
- 설명희, 김정민, 조한솔 (2023).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도덕적 이탈의 이중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41(3), 1-15. doi:10.7466/JFBL.2023.41.3.1
- 소영, 박기환 (2015). 분노반추와 분노의 관계에서 사고통제감의 조절효과. *인지행동치료*, 15(1), 95-111.

- 신민진, 하은혜 (2018).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집단의 특성: 복지시설 심리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복지연구*, 16(1), 1-19.
- 안현진, 금명자 (2018).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6(1), 173-187. doi:10.35151/kyci.2018.26.1.009
- 양재원, 양윤란, 오경자 (2008). 아동,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측정: 한국판 청소년 사회불안척도 (K-SAS-A)의 타당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4), 861-878. doi:10.15842/kjcp.2008.27.4.005
- 유가람, 박주희 (2019). 중학생의 적대적 귀인편향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정의민감성의 다중가산조절효과. *아동학회지*, 40(4), 79-97. doi:10.5723/kjcs.2019.40.4.79
- 유근영, 장재홍 (2021). 청소년의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거부민감성과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2), 209-237. doi:10.21509/kjys.2021.02.28.2.209
- 유예림, 강혜자 (2021).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편향 및 전위된 공격성 간의 관계: 의도적 통제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60(2), 383-406. doi:10.22418/jss.2021.8.60.2.383
- 유은식, 손은정 (2019). 사회불안과 해석편향의 관계: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조절효과. *재활심리연구*, 26(3), 131-149.
- 이근배, 조현춘 (2008). 한국판 분노반추척도의 타당화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4(1), 1-22.
- 임혜은, 한세영 (2022). 아동학대경험이 경험회피, 사회불안 및 분노억제를 통해 청소년의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9(1), 251-273. doi:10.15284/kjhd.2022.29.1.251
- 장호연, 장진이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공격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871-891. doi:10.23844/kjcp.2017.08.29.3.871
- 정옥분 (2019). *발달심리학: 인간 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최준섭 (2019).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과 과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초등상담연구*, 18(4), 401-415. doi:10.28972/kjec.2019.18.4.401
- 최지영, 배라영 (2014).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00년~2013년. *인간발달연구*, 21(1), 181-200.
- 한영경, 김은정 (2011). 초기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 하위유형의 특성 탐색: 사회평가불안과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4), 985-1002. doi:10.15842/kjcp.2011.30.4.009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doi:10.1176/appi.books.9780890425596

- Arsenio, W. F., Cooperman, S., & Lover, A. (2000). Affective predictors of preschoolers' aggression and peer accepta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438-447. doi:10.1037//0012-1649.36.4.438
- Baumeister, R. F. (2002). Ego Depletion & Self-Control Failure: An Energy Model of the Self's Executive Function. *Self & Identity, 1*(2), 129-136. doi:10.1080 /152988602317319302
- Bushman, B. J. (2002). Does Venting Anger Feed or Extinguish the Flame? Catharsis, Rumination, Distraction, Anger, and Aggressive Responding.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6), 724-731. doi:10.1177/0146167202289002
- Costello, E. J., Egger, H. L., & Angold, A. (2005). The Developmental Epidemiology of Anxiety Disorders: Phenomenology, Prevalence, & Comorbidity. *Child &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4*(4), 631-648. doi:10.1016/j.chc.2005.06.003
- Crick, N. R., Casas, J. F., & Nelson, D. A. (2001). Toward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Peer Maltreatment: Studies of Relational Victimiza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3), 98-101.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1), 74.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doi:10.1111/j.1467-8624.1995.tb00900.x
- Crick, N. R., Grotpeter, J. K., & Bigbee, M. A. (2002). Relationally & physically aggressive children's intent attributions & feelings of distress for relational & instrumental peer provocations. *Child Development, 73*(4), 1134-1142. doi:10.1111/1467-8624.00462
- Dixon, L J, M T Tull, A A Lee, N A Kimbrel, & K L Gratz. (2017). The Role of Emotion-Driven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i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Anxiety & Aggres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3*(6), 722-732. doi:10.1002/jclp.22372
- Erickson, R. P. (1968). Stimulus coding in topographic & nontopographic afferent modalities: On the significance of the activity of individual sensory neurons. *Psychological review, 75*(6), 447. doi:10.1037/h0026752
- Faucher, C., Jackson, M., & Cassidy, W. (2014). Cyberbullying among university

- students: Gendered experiences, impacts, & perspectives. *Education Research International*, 2014(1), 698545. doi:10.1155/2014/698545
- Garandeau, C. F., Ahn, H. J., & Rodkin, P. C. (2011). The social status of aggressive students across contexts: The role of classroom status hierarchy, academic achievement, and grade. *Developmental psychology*, 47(6), 1699. doi:10.1037/a0025271
- Girard, L. C., Tremblay, R. E., Nagin, D., & Cote, S. M. (2019). Development of aggression subtype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ling perspectiv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7, 825-838. doi:10.1007/s10802-018-0488-5
- Guyer, A. E., Caouette, J. D., Lee, C. C., & Ruiz, S. K. (2014). Will they like me? Adolescents' emotional responses to peer evalu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8(2), 155-163. doi:10.1177/0165025413515627
- Kashdan, T. B., Jon D Elhai, & William E Breen. (2008). Social Anxiety & Disinhibition: An Analysis of Curiosity & Social Rank Appraisals, Approach-Avoidance Conflicts, & Disruptive Risk-Taking Behavio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6), 925-939. doi:10.1016/j.janxdis.2007.09.009
- Kashdan, T. B., P E McKnight, J A Richey, & S G Hofmann. (2009). When Social Anxiety Disorder Co-Exists with Risk-Prone, Approach Behavior: Investigating a Neglected, Meaningful Subset of People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Replication. *Behaviour Research & Therapy*, 47(7), 559-568. doi:10.1016/j.brat.2009.03.010
- Kessler, R C, P Berglund, O Demler, R Jin, & E E Walters. (2005). Lifetime Prevalence & Age-of-Onset Distributions of DSM-IV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6), 593-602. doi:10.1001/archpsyc.62.6.593
- Kokkinos, Constantinos M, Ioanna Voulgaridou, & Georgia Despoti. (2021). The Indirect Effects of Anger on Relational Aggression through Anger Rumination. *Aggression & Violent Behavior*, 27(6), 511-522. doi:10.1080/15388220.2021.1969242
- LaGreca, A. M., & Lopez, N. (1998).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Linkages with Peer Relations & Friend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83-94. doi:10.1023/A:1022684520514
- Little, Todd D, Susanne M Jones, Christopher C Henrich, & Patricia H Hawley.

- (2003). Disentangling the ‘Whys’ from the ‘Whats’ of Aggressive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2), 122-133. doi:10.1080/01650250244000128
- Loudin, J. L., A. Loukas, & S. Robinson. (2003). Relational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 Empathy.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29(5), 430-439. doi:10.1002/ab.10039
- Marsee, M. A., Frick, P. J., Barry, C. T., Kimonis, E. R., Centifanti, L. C. M., & Aucoin, K. J. (2014). Profiles of the forms & functions of self-reported aggression in three adolescent samples.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26(3), 705-720. doi:10.1017/S0954579414000339
- Marsee, M. A., Kimonis, E. R., & Frick, P. J. (2004). Peer conflict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doi:10.1037/t06331-000
- Milich, Richard, & Kenneth A Dodge. (1984).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Child Psychiatric Populat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471-489. doi:10.1007/BF00910660
- Prinstein, M. J., Julie Boergers, & Eric M Vernberg. (2001).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t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of Aggressors and Victim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4), 479-491. doi:10.1207/S15374424JCCP3004_05
- Risser, S. D. (2013). Relational aggression and academic performance in elementary school. *Psychology in the Schools*, 50(1), 13-26. doi:10.1002/pits.21655
- Solberg, M. E., & Olweus, D. (2003). Prevalence estimation of school bullying with the Olweus Bully/Victim Questionnaire.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29(3), 239-268. doi:10.1002/ab.10047
- Sukhodolsky, Denis G, Arthur Golub, & Erin N Cromwell.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nger Rumination Scale.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31(5), 689-700. doi:10.1016/S0191-8869(00)00171-9
- Tuente, S. K., S. Bogaerts, & W. Veling. (2019).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Aggression in Adults: A Systematic Review. *Aggression & Violent Behavior*, 46, 66-81. doi:10.1016/j.avb.2019.01.009
- Young, E. L., Boye, A. E., & Nelson, D. A. (2006). Relational aggression: Understanding,

- identifying, and responding in schools. *Psychology in the Schools*, 43(3), 297-312. doi:10.1002/pits.20148
- Underwood, M. K., Beron, K. J., & Rosen, L. H. (2009). Continuity and change in social and physical aggression from middle childhood through early adolescence.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5(5), 357-375. doi:10.1002/ab.20313

ABSTRACT

Effects of adolescents' social anxiety on relational aggression: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anger rumination

Kye, Hanbi* · Kim, Jung Min**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s of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anger rumination.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43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Seoul, Gyeonggi, Incheon, and Gyeongsang regions who completed a self-report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and Macro Process 4.2.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lational aggression by gender and academic achievement. Male students reported higher relational aggression than females, and high-achieving students exhibited more 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 than average-achieving peers. No significant difference appeared by grade. Relational aggression correlated with social anxiety,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anger rumination.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anger rumina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proactive relational aggression, and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with 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 These findings suggest adolescent relational aggression is shaped by distinct emotional and cognitive pathways, depending on its function. The study provides insight into how social anxiety may manifest as relational aggression and highlights the need for tailored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hich reflect differences in the mechanisms underlying each type of aggressive behavior.

Key Words: relational aggression, social anxiety, hostile attribution bias, anger rumination, adolescents

* Myongji University, Ph.D. Student,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 Myongji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